

나비엑스포 홍보대사로 함평 온 '골프 지존' 신지애

“기량 더 가다듬은 뒤 미국 갈래요”

12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공항에 도착한 신지애(사진)는 밝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날 오후 함평군에서 열린 세계나비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과 환영행사, 모교인 함평골프고 방문행사를 위해 광주에 왔다. 그녀는 한국여자골프를 평정한 대스타가 아닌, 어느 소녀들과 똑같이 모자를 눌러쓰고, 수수한 청바지에 점퍼차림이었다.



“우승하면 용돈 100만원 준우승엔 10원도 없어요 내년엔 천만원 받아야죠”

▲정말 많이 피곤해요. 올 한해는 힘든 일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쉬는날이면 TV 좀 보고, 잠을 많이 자요. 아니면 친구들과하고 영화보고, 가끔씩 쇼핑도 해요. -남자친구는 있으나, 없으면 사귀 계획은.

▲운동에 집중하고 싶어요. 너무 어렵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연애나 결혼은 세계 최고 자리에 올랐을 때 생각할래요. -슬로 스타터(slow starter)란 별명처럼 강한 뒷심의 비결은. ▲어떤 신문들 보니 제가 최근 15개 대회 가운데 1라운드에서 60대 타수를 기록한 것은 여섯 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족한 타수는 뒤에서 채운다고 나왔더군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라운드부터 1등으로 나선 경기도 많거든요. 다만 역전이 돋보이는 스포츠의 특성상 제가 몇 번 그렇게(역전) 우승하니까 그런 별명이 생겼나 봐요. -미국 진출 계획은 없어요. ▲일단은 올해처럼 국내대회에 집중하고 싶어요. 미국 진출은 개인적인 기량을 더 가다듬은 뒤 생각할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가야겠지만 조금더 생각해볼게요. -개인적 기량이 많이 부족하단 뜻인가요. ▲이제 시작일 뿐인걸요. 세계 최고가 되려면 드라이버와 퍼팅의 정확도도 더 갖춰야 하고, 세계 수준에 비해 비거리도 부족하고 그래요. 보완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끝으로 주말골퍼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템포와 리듬을 강조하고 싶어요. 공을 멀리 보내고 싶어하는 욕심에 빠르게 치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많은데, 제 생각엔 빠르게 멀리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신에게 맞는 템포와 리듬만 갖춰도 골프 실력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인터뷰를 마치면서 앞으로 목표를 물었다. “15살때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두 동생도 중상을 입었어요. 당시 어머니 과실로 판정돼 한푼도 못 받고, 골프를 그만 두어야 할 처지였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도와주셨고, 그분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연습했더니 이 자리까지 왔네요. 내년엔 10승 이상을 하고, 세계 최정상 선수가 돼 불우이웃도 돕고, 골프 끝나무도 키우고 싶어요.”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승 상금 100만달러 잡아라”

LPGA 시즌 마지막 대회 ADT챔피언십 15일 개막 박세리 등 한국선수 10명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한 시즌을 결산하는 ADT챔피언십에 한국 및 한국계 선수 10명이 출전한다. 15일(이하 한국시간) 밤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트립핀인터내셔널 골프장(파72·6천523야드)에서 개막하는 이 대회는 32명의 선수가 우승 상금 100만달러(총상금 155만달러)를 놓고 펼치는 특급 대회다. 12일 끝난 미첼컴퍼니 LPGA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까지 올 시즌 성적으로만 골라낸 출전 선수 명단에 한국여자골프의 간판 박세리(30·CJ), 김미현(30·KTF)을 비

롯해 신인왕을 받은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19)등 모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출전 선수 중 3명의 1 가량이 한국 및 한국계 선수인 셈이다. 시즌 7승을 올린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5승을 올린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당연히 출전하는 가운데 우승이 없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도 미첼컴퍼니 대회에서 선전을 펼쳐 막차를 탔다. 하지만 작년 이 대회에서 우승해 신데렐라로 떠올랐던 홀리에타 그라나다(파라과이)는 성적 부진으로 올해 대회 출전권을 따지 못했다. 1996년 시작된 ADT챔피언십은 작년부터 대회 방식을 바꿔 1, 2라운드 36홀 경기에서 16명을, 3라운드에서 8명을 가려낸 뒤 마지막 라운드에는 8명이 남아 최후의 승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PGA 올 시즌 결산

김경태 ‘돌풍’...세대교체 완료

20대 선수들 17개 대회 중 11차례 우승

11월 하나투어챔피언십이 끝나면서 한국프로골프 2007년 시즌이 막을 내렸다. 올해 17개 대회를 치른 한국프로골프는 ‘슈퍼투기’ 김경태(21·신한은행) 돌풍과 함께 세대교체의 완료로 요약된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국가대표로 나서 도하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오르는 등 ‘월성부른 파랑새’로 촉망받았던 김경태는 올해 프로무대에 뛰어들자마자 개막전부터 우승 트로피 3개를 차지하면서 상금왕(4억4천277만6천667원)과 신인왕 타이틀을 석권했다. 김경태가 벌어들인 4억4천277만6천667원은 프로골프 사상 시즌 최대 상금이며 4억원 돌파도 처음이다. 신인이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한 것도 김경태가 처음이고 개막전과 두번째 대회를 잇따라 제패한 것 역시 전대미문의 진기록이다. 김경태는 필드에서 일어난 돌풍 뿐 아니라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시즌 도중 규정을 바꾸도록 만드는 ‘슈퍼파워’를 발휘해 화제가 됐다. 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프로 테스트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김경태는 전경기 출전권이 아닌 대기선수 신분이 부여받아 대회 때마다 빈 자리가 생겨 출전할 수 있는 신세였다. 개막전인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우승했지만 ‘규정에 따라 전경기 출전권은 2008

년부터 준다’는 한국프로골프협회의 발표에 팬들은 들고 일어났고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하자 협회는 결국 전경기 출전권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스물하늘 김경태가 상금왕에 오른 데서 보듯 올해 한국프로골프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정통 스윙을 구사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은 20대 선수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17개 대회에서 20대 선수들이 11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상금랭킹 10위에 무려 6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1~7위에 서른을 갓 넘긴 김형태(30·테일러메이드)가 3위에 올랐을 뿐 6명이 20대 선수가 포진했다. 작년 상금왕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도 김경태에 상금왕을 내줬지만 3승을 올리며 공동 다승왕을 차지하며 20대 기수로 확실한 위상을 다졌다. 이와 함께 국내 최고 상금 대회인 한국오픈과 신한동해오픈은 각각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상급 선수인 비제이 싱(피지)과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우승컵을 차지해 세계 수준과 격차를 드러냈다. 한편 한국프로골프는 올해 사상 첫 해외대회 개최(중국 상남에플시티오픈)와 금강산에서 투어 대회(농협아난티오픈)를 열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함평 방문 이모저모

아버지와 함께 카퍼레이드

○함평군은 12일 오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올 시즌 8승으로 최다승 신기록을 세운 신지애의 성과를 축하하고 특히 함평골프고 출신으로 고장의 명예를 드높인 데 대해 감사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군청에서 열린 이날 기념행사에는 관내기관 사회단체장이 모두 참석, 기념품 및 꽃목걸이 전달과 2008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장 전수식 등이 열렸으며 이어 신지애 선수는 함평 시가지를 카퍼레이드 한 뒤 모교에 도착해 후배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군민들 열띤 박수로 환영

○신지애는 이날 오후 군청 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아버지 신재섭(46)씨와 함께 올라탄 뒤 광주은행~구 함평터미널~농협 함평군 지부~함평신협~성심병원앞 등 주요 거리를 거쳐 함평골프고까지 20여분간 카퍼레이드를 펼쳤다. 도로변에 몰려 든 수백명의 함평군민들은 박수로 신지애를 반겼고, 신지애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신지애는 카퍼레이드가 끝난 뒤 사인을 요청하는 군민들에게 친절히 사인을 해주는가하면 기념사진 촬영도 함께 하면서 군민들의 환영에 보답했다.

모교에서 골프교실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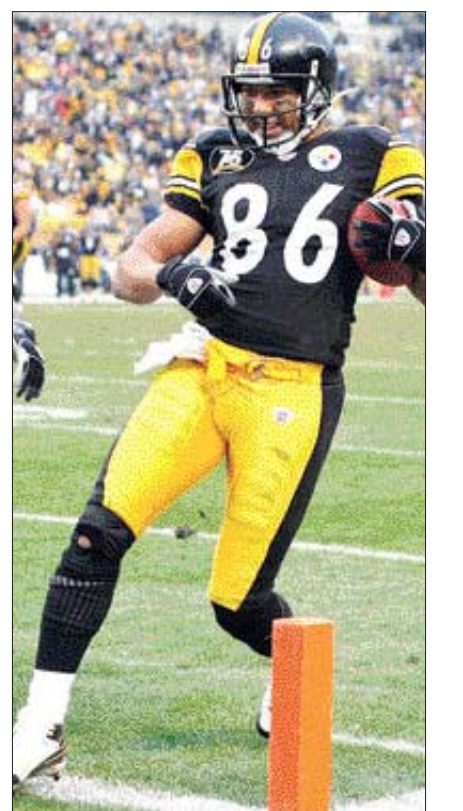
○모교에서 마련한 신지애 골프교실에선 후배들을 대상으로한 퍼팅과 칩샷 등의 기술 전수가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신지애는 ‘선배처럼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는 후배의 질문에 “학교(함평골프고)에서 가르쳐준 기술을 숙달하는 게 중요하다. 열심히 연습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며 성실성을 강조했다. 이석형 군수는 이날 골프교실에 앞선 환경사에서 “지역의 명예를 빛내고 자긍심을 고취한 신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 축하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신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전국에서 우수 선수들이 진학하는 등 골프고가 명문고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함평군을 방문한 신지애(오른쪽)가 12일 오후 아버지 신재섭(46)씨와 함께 함평 시가지를 돌며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위리량기자 jrwi@kwangju.co.kr

워드 터치다운 역전승 이끌어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1·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역전승을 이끌었다. 워드 리시버 워드는 12일(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하인즈필드에서 벌어진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정규 시즌 10주차 홈경기에서 추격의 불씨를 댕기는 터치 다운 1개를 찍고 7번 패스를 받아 80야드를 전진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31-28 뒤집기 승리에 앞장섰다. 워드는 9-21로 끌려 가던 3쿼터 종료 6분 14초를 남겨 놓고 쿼터백 벤 로슬리버거의 12야드 패스를 받아 클리블랜드의 골문을 넘어서는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지난 달 29일 신시내티 벵갈스전에서 터치다운 2개를 찍은 뒤 두 경기 만이다. 피츠버그는 클리블랜드에 터치다운을 내줘 24-28로 다시 뒤졌으나 경기 종료 3분13초를 남기고 히스 밀러가 2야드 패스를 터치다운으로 연결해 패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워드 리시버 하인스 워드가 12일 열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미국프로풋볼(NFL) 정규 시즌 10주차 홈경기에서 쿼터백 벤 로슬리버거의 12야드 패스를 받아 터치다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